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2. 20(목)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 모내 코로나19 9명 확진.. 경북도,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총력** 20일(목), 추가 확진환자 6명 발생, 총 9명으로 늘어나 즉각대응팀 심층 역학조사 중, 접촉자 격리 조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개인의 위생수칙 등 도민의 협력 중요 강조	대변인	
② **경북도, 산사태 예방·복구 총력... 646억 투입** 산사태예방에 361억, 태풍 '미탁' 피해복구에 285억 투입 우기전 사업완료...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산림자원과	
③ **구미 스마트산단사업단 출발합니다!!... 스마트하게** 구미 스마트산단사업단 현판식 열려,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적지,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과학기술정책과	
④ **경북소방본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 감염관리실 긴급 점검... 현장대원 격려	소방본부	
⑤ **경북도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 2개 분야 선정**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 등 2개분야 4개 과제	법무혁신 담당관	
⑥ **경북소방 승강기에 갇힌 사람도 안전하게.. 승강기 인명구조훈련 실시** 2019년 승강기 사고 총 691건 발생... 신속·안전한 인명구조 중점 훈련	소방본부	
⑦ **경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신청하세요!** 3월 6일까지 신청, 소외계층, 장애인, 동아리, 마을주민 대상 평생교육 지원	경북도립 대학교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20(목)】	담당부서	대변인		
		작 성 자	대변인	이 상 학	
			팀 장	이준희	주무관	이영순
		연 락 처	054-880-4322		

경북 도내 '코로나19' 9명 확진... 경북도,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총력

- 20일(목), 추가 확진환자 6명 발생, 총 9명으로 늘어나 -

- 즉각대응팀 심층 역학조사 중, 접촉자 격리 조치 -

-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개인의 위생수칙 등 도민의 협력 중요 강조 -

경북도는 20일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6명이 추가로 발생, 현재 확진 환자가 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추가1번 확진환자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57세 남성으로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 2월 19일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으로 의사에 소견에 따라 SCL 수탁기관에 1차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양성 확정 판정을 받아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음압병실 입원중이며,

추가2번 확진환자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으로 추가1번 확진환자와 같이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 발열 증상으로 의사소견에 따라 SCL 수탁기관에 1차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양성 확정 판정을 받아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음압병실에 입원 중이다.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확진판정을 받은 2명은 최근 한 달 동안 외출기록이나 면회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3번 확진환자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22세 남성으로 신천지 교회 신도로 발열, 가래, 두통 증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2월 19일 22시 50분 양성으로 확인되어 안동의료원 음압병상에 입원했다.

추가4번 확진환자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30세 여성으로 신천지 교회 신도로 31번 확진자와 같은 신천지대구교회에서 예배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열, 가래, 근육통, 기침 등 증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2월 20일 02시 30분 양성으로 확인되어 포항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됐다.

추가5번 확진환자는 경산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상주시에 주소를 둔 23세 여성으로 경산 원룸에서 택시와 기차를 통해 상주시로 이동하였으며 2월 19일 오전 발열 증상을 느껴 상주 성모병원을 내원하였고 입구에서 보건소로 안내받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실시, 2월 20일 02시 30분 양성으로 확인되어 자가격리 조치 되었으며 안동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됐다.

추가6번 확진환자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여성으로 2월 12일 오전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기침 증상을 느껴 2월 15일 대구 소재 더감동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였고 2월 18일 대구소재 마음과마음정신의학과를 내원하였으며 2월 19일 경산 혜화연합의원에 내원하여 보건소로 안내받고 검체 검사를 실시, 2월 20일 02시 30분 양성으로 확인되어 자가격리 조치 되었으며 포항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 예정이다.

총 9명의 확진환자 중 5명은 신천지교회와 역학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4명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주를 지역 확산의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으로 청도 대남병원 입소자 99명에 대해 전원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청도 대남병원은 물론 통로로 연결돼 있는 청도군 보건소,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에덴원 등 4곳의 환자 및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료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3명 1개조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에서 이동경로 및 전파경로를 추적하여 역학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확진자의 이동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폐쇄 조치는 물론 도내 소재 의료원을 활용하는 등 추가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도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된 단계로 도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의심증상 발현시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말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와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상담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를 통해 안내를 받을 것” 을 거듭 강조하고 “가급적 외부 활동 자제와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할 것” 을 당부했다.

경북「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 **확진자 현황 9명 (영천 4, 경산 2, 상주 1 청도 2)** (20.2.20. 8시 기준)

연번	환자 번호	성명	연령	성별	거주지	현재증상	기저질환유무	입원 병원
1	37	김**	73년 (47세)	남	영천시	발열, 두통, 오한	-	경북대 병원
2	39	김**	59년 (69세)	여	영천시	오한, 근육통	-	동국대 경주병원
3	41	권**	51년 (70세)	여	영천시	두통→기침, 가래, 인후통	당뇨	동국대 경주병원
4	추가1	최**	63년 (57세)	남	청도군	발열, 기침, 인후통	고혈압	동국대 경주병원
5	추가2	전**	61년 (59세)	남	청도군	발열	고혈압	
6	추가3	최**	98년 (22세)	남	영천시	발열, 가래, 기침	-	안동 의료원 (예정)
7	추가4	강**	90년 (30세)	여	경산시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	포항 의료원 (예정)
8	추가5	육**	97년 (23세)	여	상주시	발열	-	안동 의료원 (예정)
9	추가6	표**	00년 (20세)	여	경산시	발열, 오한, 근육통, 기침		포항 의료원 (예정)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20(목)】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작 성 자	과 장	김 재 준	
			팀 장	도규명	주무관 금창호
		연 락 처	054-880-3606		

경북도, 산사태 예방·복구 총력… 646억 투입

- 산사태예방에 361억, 태풍 ‘미탁’ 피해복구에 285억 투입 -
- 우기전 사업완료…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경상북도는 산사태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난해 발생한 태풍 피해지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총 6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예년과 달리 태풍과 시간당 30㎜이상 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사태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도는 산사태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금년에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설치 63개소, 계류보전 60km, 산지사방 10ha 등 361억 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에 사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현장예방단 60명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0월) 전후에 집중 배치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점검과 응급조치,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로 점검과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으로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0월초에 북상하여 경북지역에 큰 피해를 안겨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생된 산림피해지에 대하여 285억 원을 들여 우기 전에 조속히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북도는 미탁으로 인해 포항시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에 80ha의 산사태 등 산림분야에 110억 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었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금년 선제적이고 내실있는 산사태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해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점검·진단으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20(목)】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자	과 장	홍 석 표	
			팀 장	강은희	주무관 남현대
		연 락 처	054-880-2420		

구미 스마트산단사업단 출발합니다!!... 스마트하게

-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 현판식 열려,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적지,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경북도는 20일 구미 한국산업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구미스마트 산단 사업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시장, 산단공부이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단장이 ‘구미스마트산단 비전 및 추진목표’를 발표하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의 ‘구미형 스마트 제조혁신 구축전략’ 발표에 이어 현판식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구미 산단이 스마트산단 공모에 지정된 이후 올해 1월 사업단이 구성되고, 스마트사업단 단장이 선정 되는 등 차분히 사업단 출격이 준비되어 왔다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은 기존 사업에 ICT· 지식서비스산업을 융복합 시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제조공정과 제품의 첨단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산단내 편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기술창업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친환경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구미형 일자리 등과 연계한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국가공모에 선정된 후 사업의 실현을 담당할 사업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의 혁신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2층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경북도, 구미시 및 경북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대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장, 부단장, 3팀 11명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꾸렸다.

사업단은 당초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토대로 기업체, 혁신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세부실행계획을 금년 5월중으로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산단 전체의 제조업 생태계를 스마트화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적지로서 제품 국산화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이로써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시켜 경북은 물론 한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 스마트산단사업단 현판식 개최 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개념의 국가사업인「**스마트산단**」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선정**('19.9.10)됨에 따라 사업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코자 함

행사개요

○ 일 시 : '20. 2. 20(목), 16:00~17:00

○ 장 소 : ①**추진전략보고**(대경본부 별관 1층), ②**현판식**(대경본부 본관 1층)

* (주소)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 참 석 : 김용래(산업혁신성장실장), 구미시장, 산단공 부이사장, 경북TP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원장, 경영자협의회회장, MC(미니클러스터)회장단 등(17여명)

시간 계획

일시			주요 내용	비 고
추진 전략 보고 (1부)	16:00~16:05	5분	주요내빈 소개	사회자(기획팀장)
	16:05~16:20	15분	인사말씀(순서대로) [산업부 실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구미시장, 산단공 부이사장 順]	주요 내빈(4명)
	16:20~16:35	15분	『구미스마트산단 비전 및 추진목표』 발표	사업단장
	16:35~16:50	15분	『구미형 스마트 제조혁신 구축전략』발표	경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문영백
현판식 (2부)	16:50~16:55	5분	현판식 장소 이동(별관→본관)	-
	16:55~17:00	5분	현판식 및 기념촬영	-
	17:00~	-	환송(1층 로비)	-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20(목)】	담당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작성자	과 장	백 승 욱	
			팀 장	김난희	주무관 정미향
		연 락 처	054-880-6323		

경북소방본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 감염관리실 긴급 점검… 현장대원 격려 -

경북소방본부는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계단계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19종합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 구급상황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염증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19일 기준 41건의 코로나19관련 의료상담 등을 처리했다. 보건소 감염담당부서와 핫라인도 구축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도내 19개 소방서에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를 지정하고 구급차량 소독을 위해 총 72개의 감염관리실을 최대한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청사 소독 등 상황별 행동지침에 따라 현장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49개의 소방공무원 격리시설도 운영한다.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19 의심 및 확진 환자 이송 요청 시 중증도에 따라 보건소 지정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이후 플루건과 소독기를 활용하여 완벽하게 구급차량을 소독 후 건조 및 환기를 실시한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19일 고령소방서를 방문해 감염관리실 관리상태와 장비 세척기, 멸균소독기, 구급차량 등 현장상황과 감염증 환자 접촉 시 행동지침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대원들을 격려했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도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소독과 예방교육을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20(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작 성 자	담당관	강 돈 영	
			팀 장	신승대	주무관 류주숙
		연 락 처	054-880-2251		

경북도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 2개 분야 선정

-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 등 2개분야 4개 과제 -

경북도에서 발굴·건의한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 등 4개 과제가 20일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됐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 19년도 지역주민·기업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건의한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한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한 민생혁신 등 세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농어촌 주민·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도 완화된다.

이중 경북도는 50건중 4건이 선정됐다. 먼저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 닥터헬기 이착륙 장소가 확대됐다. 기존 논밭 인근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인계점)을 조성하여 농작물 피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착륙 허용 및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 협조가 의무화 되도록 개선했다.

영업부담 완화분야는 첫째,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분야에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단일건물 형태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30㎡내에서는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분리된 건물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둘째, 지역 중소기업 구인 부담 완화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영업불편 해소 등 분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다. 농어촌 등 교육 이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이버 교육 이수가 가능토록 한다.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제도 개선은 영업부담 완화 분야에 대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돈영 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생규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현안 사업 및 숙원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붙임 **경상북도 개선사항 세부내용 (4건)**

1. 생활불편 해소(1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닥터헬기 이착륙 장소 확대 (경북 → 복지부)	기존 경북 안동시에는 논밭 인근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인계점)을 조성하였으나, 닥터헬기 이용시 발생하는 하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농민반대로 실제 활용이 어려워 육로를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하는 상황 빈발 * 응급 헬기 이착륙장 현황('18.) : 닥터헬기 828개, 소방청 3,479개 개선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이착륙 허용 및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협조 의무화 효과 인계점에 구애받지 않는 닥터헬기 운용으로 응급환자 신속 이송 가능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총리훈령) 제정	'19.7.(기조치)

2. 영업부담 완화(3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농어촌 민박 형태 다양화 (경북 → 농림부)	기존 경북 의성군의 귀농인은 농업소득 외 민박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2~3평 규모로 여러 동을 건축하여 소규모 민박 운영을 추진. 농림식품 사업 시행지침에서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미만 단독주택 숙박용 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만 허용함에 따라 사업 포기 개선 230㎡ 범위의 동일단지 내에서는 분리된 주택으로 농어촌 민박으로 허용 효과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민박으로 농어촌 추가수익* 창출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10년간 421억원(연간 평균 51억원) 소득 증가 기대 (KREI경제성 분석)	농림식품사업 시행지침 개정(행정조치)	'19.7 (기조치, 기발표)
2	관할 고용센터 외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기존 경북에는 의성군·안동시를 담당하는 안동고용센터, 구미시를 담당하는 구미 노동센터 등이 운영 중. 경북 구미시·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EPS) 개선(행정조치)	'20.5

<table>
<tr><th>연번</th><th>과제명</th><th>개선내용</th><th>조치사항</th><th>완료시한</th></tr>
<tr><td></td><td>발급 허용
(경북 → 고용부)</td><td>의성군 경계지역인 의성군 단밀면 농공단지 소재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시* 인근 구미고용센터는 해당 관할이 아니어서 40km 이상 먼 안동고용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

개선 관할 고용센터 외에 인접 고용센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개선
- 시스템 개선전에는 관할고용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접수하고 관할로 이첩

효과 외국인 근로자 구인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해 농어촌 소재 기업의 인력수급 고충 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td><td></td><td></td></tr>
<tr><td>3</td><td>장애인활동 지원사 온라인 교육 허용
(경북 → 복지부)</td><td>기존 경북 의성군은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필요하나 지역여건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확보가 곤란.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실기교육(40시간) 및 현장실습(10시간)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실습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의성군의 경우 관내 교육기관이 없고 인접 시군 교육 가능인원 부족 등으로 3개월 이내 의무교육(40시간)을 이수하지 못해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활동지원사 활동을 중단되는 사례 발생
* 장애인 활동지원사
<table><tr><td>개요</td><td>중증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전문교육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 필요</td></tr><tr><td>요건</td><td>교육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td></tr><tr><td>급여</td><td>시간당 12,960원(일반)~19,940원(공휴일 등)</td></tr></table>
개선 농어촌 등 교육 이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농어촌 벽지 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사 공급 확대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연사례 방지</td><td>장애인 활동사업 안내지침 개정 및 시스템 마련</td><td>’21.12</td></tr>
</table>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20(목)】	담당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작 성 자	과 장	백 승 욱	
			팀 장	류득곤	주무관 이재진
		연 락 처	054-880-6314		

경북소방, 승강기에 갇힌 사람도 안전하게.. 승강기 인명구조훈련 실시

- 2019년 승강기 사고 총 691건 발생... 신속·안전한 인명구조 중점 훈련 -

경북소방본부는 고층건축물의 증가 및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발생 등 빈발하는 승강기 사고에 대비하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남 거창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속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경북도 내 승강기 사고는 총 691건이 발생했다. 발생장소는 공동주택 403건, 판매시설 75건, 기타 213건으로 119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588명을 구조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번 훈련에는 도내 19개 소방관서 119구조대원 60명이 참여했으며 ▲승강기 설치 구조 및 작동원리 ▲비상시 안전조치 요령 ▲비상키 사용법과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정보 확인 등 이론교육과 유형별 승강기 갇힘 사고 상황을 연출해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긴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와 현장대응능력 극대화에 훈련을 집중했다.

훈련에 참여한 구조대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승강기 구조원리부터 종류별 구조 방법까지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승강기는 전기 사용량 급증 등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일 갇힘 사고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한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20(목)】	담당부서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진흥원		
		작성자	처 장	김 일 수	
			팀 장	오세정	주무관 송창엽
		연 락 처	054-650-0311		

경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신청하세요!

- 3월 6일까지 신청, 소외계층, 장애인, 동아리, 마을주민 대상 평생교육 지원 -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과 지역사회가 배움과 나눔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0 경상북도 평생교육 사업' 공모를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5개 사업 분야, 총 사업비 3억 5백만원, 73개소 내외가 지원을 받게 된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마을평생교육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0개 내외 마을에, 최대 5백만원까지 신청가능하다.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북의 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내외 기관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희망사다리는 소외계층(다문화, 저학력자, 노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내외 기관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학습 희망사다리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0개 내외 기관에, 최대 8백만원을 지원한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도내 활동 중이며 진흥원에 등록된 동아리로 학습형, 재능기부형, 문제해결형 동아리를 지원한다. 25개 내외 동아리에, 최대 2백만원까지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le.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도내 공공 및 민간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평생교육 공모사업은 소외계층 12개, 특화 11개, 동아리 25개, 마을 8개, 희망사다리 10개로 총 66개 기관이 선정되어 1,500명의 학습자가 참여했다. 학습하고 성장하는 경북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병윤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번 공모사업 외에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빛나는 인생학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 강사 연수,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 연수, 평생교육 포럼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모두가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경북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 문의 :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마을평생교육 활성화(054-650-0252)
소외계층 평생학습 희망사다리, 장애인 평생학습 희망사다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054-650-0320)